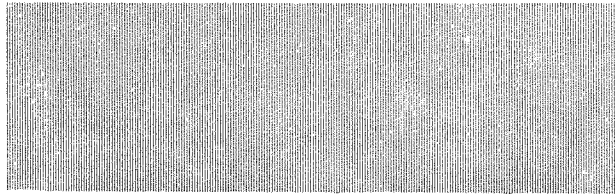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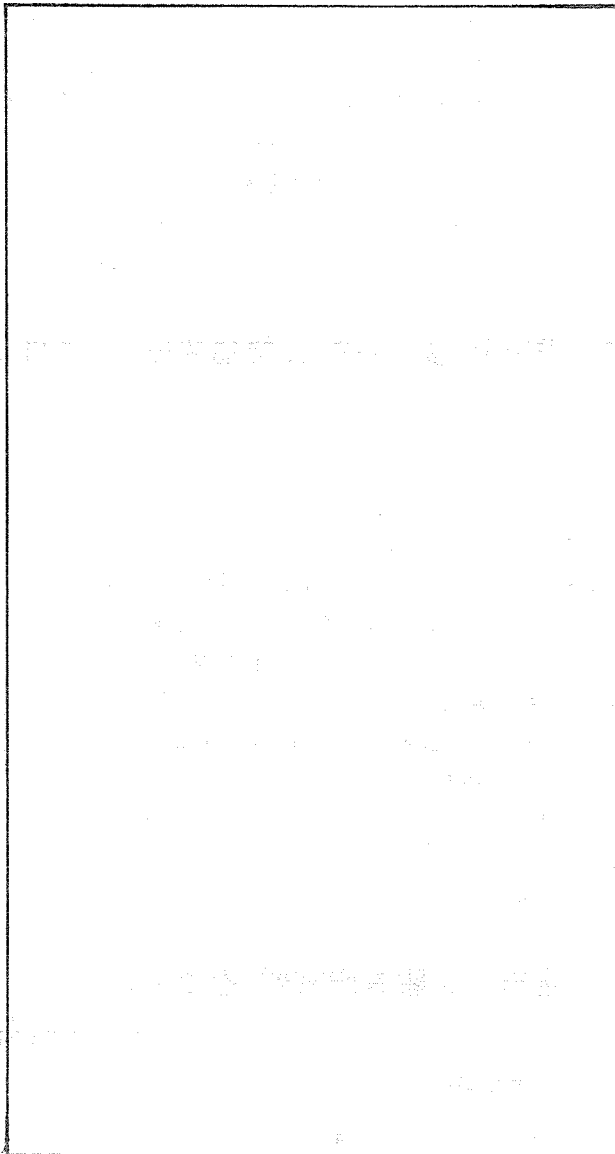


月間建築情報



1980. 3. 21~4. 20.



대단위 汚泥處理場 신설, 용량 3,000kl/일 81년까지 60億들어, 終末處理場도 확장-서울시

서울시는 81년까지 60億원을 들여 北部위생처리장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에 汚泥처리장을 신설하고, 淸溪川 및 中浪川 하수처리장과 東部위생처리장등 綜合終末處理場의 분뇨처리시설을 확장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西部·北部·東部·淸溪川·中浪川등 5개 분뇨처리장의 시설용량이 하루 2,800kl이나 정전·시설마비 등으로 2,380kl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衛生處理場 施設改善策에 따르면 금년 6월부터 81년 12월까지 45億원을 투입, 北部衛生處理場에 신설될 汚泥處理場은 서울시내 27萬개의 수세식 변소 오물정화조에서 수거되는 하루 2,290kl의 汚泥를 처리하며, 이 처리장이 완공되면 開花洞 분뇨간이처리장은 폐쇄된다.

淸溪川·中浪川 하수처리장을 비롯, 東部 분뇨처리장등 綜合終末處理場의 시설확장공사는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14億원을 들여 600~900kl의 분뇨를 담을 수 있는 분뇨통 4개와 분뇨찌꺼기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새로 건설되는 北部汚泥處理場은 太陽熱을 이용, 汚泥를 부패시키는 在來式處理法(開花洞 처리장) 대신, 기계화한 처리방법을 통해 汚泥汚染度를 최저수준(40ppm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在來式과 水洗式便所의 하루 분뇨생산량은 6:4의 비율인데, 계속 수세식의 증가추세여서 淨化槽 汚泥處理施設을 확장하는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淨化槽 汚泥란 재래식 변소에서 배출되는 生糞尿가 아닌, 淨化槽에서 걸러내고 남은 찌꺼기이다. 이때는 汚染度가 300ppm(生糞尿는 20,000ppm)인데, 이를 開花洞 분뇨처리장에서 태양열을 이용, 50일가량 부패시켜 汚染度가 50ppm까지 떨어지면 漢江으로 배출시키고 있다.

觀光振興開發基金,

82년까지 1,000億원 조성

宿泊施設확충·새 資源개발 등에 중점

3월22일 교통부에 따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宿泊施設 확충과 觀光團地造成 및 새로운 觀光資源開發을 위해, 현재 250億원이 조성되어있는 觀光振興開發基金을 금년에 100億원, 81년도에 300億원, 82년 300億원 등을 확보, 오는 82년까지 1,000億원을 조성, 觀光産業施設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觀光振興開發基金은 觀光호텔建設과 觀光團地 및 指定觀光團地내의 觀光호텔 유치사업, 國民觀光地 開發 및 靑少年호텔 建設, 觀光團地開發 및 觀光施設 확충등에 우선 지원해줄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 基金으로 올해 觀光호텔 3,800室, 81년도에 1,500室을 건설토록 지원하고, 이미 추진중인 慶州普門團地 濟州 中文團地 開發工事와 33개 指定 觀光地開發에 重點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국민전전관광을 유도하기위해 都市 및 工業團地 인근에 건설할 예정인 國民觀光團地개발 및 宿泊施設 건설과 觀光交通手段 확보 등에 重點 지원할 방침이다.

中東建設市場, 경쟁치열 · 採算性 · 技術集約 · 大型化

국제경제연구원, “80년대 中東市場”을 전망

3월22일 국제경제연구원은 “80년대 中東建設市場 展望과 우리의 대응책”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中東建設市場은 치열한 경쟁, 採算性의 악화, 技術集約的인 工事로의 전환, 工事의 大型化 등과 같은 새로운 양상을 나타낼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建設業체들이 지나친 政府依存을 탈피, 스스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競爭能力을 배양하고, 經營管理者의 양성과 建設技術人力의 훈련을 강화하는등 經營合理化를 통해 採算性의 악화를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政府는 建設業체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金融 · 外換 · 稅制上의 支援体制을 확립해야하며, 國內業체間의 과당 경쟁방지, 海外工事情報의 신속한 입수, 特定地域에 偏重된 건설시장의 多邊化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市民아파트 금년분 撤去보류, 一서울시 補償金예산은 노후아파트 補修費로

3월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市民아파트 5동(200가구분)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보류키로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補償金 6億원은 연초에 실시한 安全度檢査時 지나치게 노후했거나 파손부분이 많은 아파트의 補修費로 쓰기로 했다.

市民아파트는 지난 69년에 총 447동 17,449 가구분을 건설, 무주택 영세민에게 분양, 入住케 한뒤, 매년 2차례씩 安全度 檢査를 실시, 붕괴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작 년말까지 126동(4,314가구분)을 철거, 현재 321동(13,136가구분)이 남아 있다.

서울시는 또 작년까지 철거되는 市民아파트 입주자에게 補償金 200만원에 市營아파트入住 추첨권을 주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補償金은 300만원으로 인상 책정하고 직접 市營아파트 入住權을 주기로 했다.

住宅價格 9년사이에 5.34배로 都賣物價 上昇率의 2배나 앞질러

3월23일 건설부에 따르면 79년말 현재 住宅價格은 지난 70년에 비해 5.34배 올라, 都賣物價가 2.71배 오른것보다 훨씬 높은 上昇率을 나타냈다.

이같은 住宅價格의 높은 上昇率은 특히 宅地價格이 이 기간중 7.88배나 크게 오른때문이며 建築費는 단독주택의 경우 3.41배, 아파트의 경우 3.3배가 올라 都賣物價 上昇率을 크게 앞질렀다.

이에따라 住宅價格 安定을 위해서는 우선 宅地價格의 安定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6층 複合建物の 건축, 허용하기로 교통난·주택난 덜기 위해, 再開發地域내

정부는 주택수의 감소를 막고, 職住近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釜山·大邱등 대도시의 再開發地域에 사무실과 주거용을 겸한 複合建物の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3월24일 건설부에 따르면 교통난·주택난을 줄이기 위해 都心地 再開發事業의 방향을 전환, 5~6층 複合建物の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도심지 人口分散을 위해 複합建物の 新築을 억제 해왔으나 再開發地區를 아파트地區로 지정하여 녹지공간과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사무실을 겸한 아파트의 건축을 허용키로 한것이다.

그러나 재개발지역내에 複合建물을 허용하더라도 住居生活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음·악취·화재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業種은 입주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支·派出所 및 畜舍 표준설계도 작성배포 建築設計費 절감을 위해—건설부

건설부는 建築設計費 절감을 돕기 위해, 일선 支·派出所의 표준설계도 12종, 農村畜舍 표준설계도 14종을 제작, 4월18일 각 시도에 배포했다.

내무부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가 금년에 처음 만든 支·派出所 표준설계도는 도시형 8종, 농촌형 3종, 공원용 1종 등 모두 12종이며, 35평형과 45평형등 2가지이다.

또 농수산부 요청에 의한 農村畜舍 표준설계도는 牛舍 7종, 豚舍 4종, 鷄舍 1종, 稚肥舍 2종 등 14종이며, 22평형에서 50평형까지 다양하다.

건설부는 앞으로도 住宅에 대한 표준설계도 외에 각종 施設物이나 工作物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작성해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을 돕기로 했다.

서울시, 民願具備書類 간소화, 處理期間단축

建築許可신청은 3종 감축

서울시는 3월24일 금년도 10개 시민여망사업의 일환

으로 民願業務 簡素化를 위해 行政改善作業班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그간 총 65건의 민원업무를 심의 그중 54건은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대폭 개선 시행키로 했다.

행정개선작업반 회의에서 심의, 개선키로한 민원업무 내용은 ▲ 建築許可, 遊技場營業許可業務 등 6개 업무는 구비서류를 최고 3종까지 감축, 즉시 시행하고 ▲ 建築審議許可, 住宅資材生産業 免許 등 31개 업무는 處理期間을 최고 23일까지 단축 시행하며 이밖에 ▲ 理·美容所 개설신고 등 17개업무는 구비서류를 감축 처리키로 했으나 關係法令을 개정해야 하므로, 關係部處에 건의, 개정 후 시행키로 했다.

즉시 시행이 가능한 37건의 민원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具備書類 감축(팔호 안은 감축서류)

▲ 建築許可(시멘트자재사용 신청서·사업 설명서·下水設備 내역서) ▲ 建築施工檢査(시멘트제품판매 확인증·저수조 용량 확인서) ▲ 上水道受托工事승인(가옥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家屋地番變更處理(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 處理期間단축(팔호안은 처리기간)

▲ 建設技術者免許手帖 재교부(2일), ▲ 市場施設承認(3일), ▲ 建築審議 및 許可(30일), ▲ 住宅資材 生産業 면허(7일), ▲ 多量給水處工事승인(10일), ▲ 危險物設置許可(5일)

建材業界에 斷熱材工場 붐

外國과 技術提携등, 岩綿·石膏보오드工場 착수

에너지 절약시대를 맞아 주요 건축자재 메이커들이 保溫斷熱材 생산공장의 대폭적인 증설에 나서고 있다.

3월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金剛은 최근 울산에 年産 2萬톤규모의 새로운 岩綿·(mineral fibre glass)工場 건설에 나섰다. 총70億원을 투입하여 대지 2萬평 연면적 적 4,000평규모로 건설하는 이 공장은 스웨덴 용거스社의 최신시설을 도입 설치되었는데 연말까지 완공예정이다.

韓國스레트도 내장재인 石膏보오드工場을 상반기중 착공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動資部로부터 형식승인을 얻고 울산에 확보된 2萬평 대지에 35億원을 투입, 연산 200萬坪규모의 石膏보오드工場을 작년 10월 착공계획이었으나 경기불투명·자금문제 등으로 미루어 오던 것이다.

化纖메이커로서 斷熱材생산에 나서기로한 코오롱의 岩綿工場 건설계획도 지난달 중순 技術提携先인 프랑스 생고방社의 기술진이 내한, 타당성을 조사한 후 귀국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認定技術士制, 82년부터 폐지—과학기술처 정식技術士없는 業体, 用役事業 불허

3월26일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技術用役業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理工系大學을 졸업하고 해당 직종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認定技術士 자격을 부여, 이 자격으로 技術用役業 등록이 가능토록 해왔다.

그러나 매년 國家技術資格試驗에 의해 배출된 정식 技術士가 200명 이상에 달해 지금까지 모두 2,642명이 배출, 技術士 부족현상이 해소되자 認定技術士制度를 오는 82년부터 폐지하고, 認定技術士에 의한 技術用役 신규등록 불허는 물론, 기존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정식 技術士를 확보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認定技術士에 의해 用役業을 하고있는 업체(등록업체 200여사중 30% 이상)는 내년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82년부터는 정식 技術士 채용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과학기술처는 이에 앞서 技術用役業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수한 用役分野(기술사가 부족한 부문)를 제외하고는 認定技術士에 의한 신규 用役業등록을 불허해왔다.

정부가 認定技術士制를 도입한것은 國家技術 資格試驗에 의해 배출된 技術士 不足難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편법이었다.

庶民住宅建設·教育施設확충에 重點

財政支出 우선순위 재검토—내년豫算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계속사업이라도 그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原點(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지출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편성방식을 채택키로 결정했다.

經濟企劃院이 마련, 3월27일 경제차관회의 의결을 거친 “81년도 豫算編成指針”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 經濟成長率을 5%, 내년은 6~8%로 잡고 예산을 편성키로 하는 한편, 계속비를 포함한 모든 財政支出의 優先順位를 당해연도마다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이른바 제로 베이스 方式을 채택키로 했다.

또 來年豫算의 重點支援部門을 庶民住宅建設, 教育施設 확충, 都市交通網 확대, 流通構造 개선, 人力開發, 에너지利用 합리화, 環境改善 등에 두기로 했다.

強力 할론가스消火劑—KIST國內 첫開發

炭酸가스消火劑보다 3배나 強力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는 현재 선진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할론가스消火劑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 할론가스消火劑는 弗素와 브롬의 化合物로된 氣體

消火劑로 종전의 炭酸가스消火劑보다 3 배, 粉末消火劑보다 2 배나되는 강력한 消火力를 가지고 있다.

이 할론가스消火劑는 680℃가량이 되면 弗素와 브롬이 분해되고 이들이 연소물질과 반응하여 연소물질을 불이 붙지않는 물질로 만듦으로써 消火 한다.

지금까지의 消化方法은 물뿌려 온도가 着火點 이하가 되게하여 끄거나, 炭酸가스 등을 뽑아 연소물질과 酸素의 결합을 막아 불이 타지않게 했다. 그러나 이 할론가스消火劑는 연소물질 자체가 타지않도록 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끌 수 있다.

그리고 종전의 消火劑와는 달리, 이 할론가스消火劑는 연소물질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종전의 消火方法은 불끈후 가구나 집기 등이 모두 물에 젖거나 포말에 뒤범벅이 되어 재사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消火劑는 모두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둔다는 장점이 있다.

消火性能을 비교하면, 이 消火劑의 消火能力을 100으로 치면, 분말소화기는 66, 탄산가스消火器는 33 정도가 된다.

이 할론가스消火劑는 건축할때 미리 건물에 부착해 둘 수도 있고, 휴대운반도 가능하다. 건물에 설치할 경우는 消火器 筒口를 열어 약한 물질로 막아두었다가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이 할론가스는 빛깔과 냄새가 없으며 인체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않는다.

아프리카에 建設輸出 추진—李외무차관 나이지리아·가봉·케냐등을 거점으로

3월31일 崔대통령 주재로 올 들어 세번째 열린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李政容 외무차관은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인 나이지리아와의 修交를 계기로 아프리카地域과 資本 및 技術協力を 중심으로한 직접投資·建設進出·개방수입 등의 경제협력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선 西部地域의 나이지리아, 中部地域의 가봉, 東部地域의 케냐 등 3개地域을 據點國家로 선정하여 우리 능력에 알맞는 방법으로 現地開發計劃에 참여하는 등 직접투자를 넓혀나가겠다고 보고했다.

李차관은 中東 18개국의 年間建設規模 520億달러와 비교해 볼때 아프리카 30개국의 年間建設投資額 240億달러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므로 아프리카建設市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 中東地域에 집중되어있는 建設進出을 아프리카地域으로 多邊化시켜 장기적으로 포스트 中東進出을 겨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0年度 建設工事都給限度額 확정

1,000億원이상 5개사 大型化추세 뚜렷

건설부는 3월31일 전국 522개 建設業者에 대한 80년도 建設工事都給限度額을 발표,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도급한도액순위 10위까지는 다음과 같다. ()내는 작년도 순위.

- | | |
|-----------------|------------------|
| 1(1) 現代建設(李明博) | 2(2) 大林産業(李煥鎔) |
| 3(3) 東亞建設(崔埃文) | 4(4) 漢陽住宅(裴鍾烈) |
| 5(8) 大宇開發(金宇中) | 6(6) 美隆建設(崔斗衡) |
| 7(5) 三煥企業(崔鍾煥) | 8(7) 極東建設(金明根) |
| 9(13) 三湖住宅(趙容時) | 10(11) 韓逸開發(趙重建) |

이밖에 漢擎建設이 18위에서 11위로, 韓寶企業이 121위에서 36위로, 宇成建設이 127위에서 43위로 뛰어올랐다. 進興企業이 9위에서 14위로, 라이프住宅開發이 10위에서 17위로, 韓信工營이 14위에서 18위로 자리를 바꾸었다.

都給限度額이 1,000億원을 넘는 업체는 5,827億원의 現代建設을 비롯, 해외공사가 활발한 大林·東亞·漢陽·大宇 등 5개사로, 작년의 3개사에서 2개사가 추가되었다. 또 500億원에서 1,000億원 미만은 작년의 3개사에서 13개사로 10개사가 늘어나 建設業體의 大型化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설부가 발표한 도급한도액은 建設業者가 금년 1년간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한도액을 말하며, 이 한도액은 建設業者의 최근 2년간 건설공사합계액을 2로 나눈 평균액이다.

獨立門, 해체된지 1년만에 復原완성

獨立門(史蹟제32호)이 해체된지 12개월만에 완전히 復原, 4월 1일 공개했다.

城山大路 건설에 밀려 작년 4월18일에 헐리기 시작한 獨立門은 총 3億 5千 6百萬원을 들여, 옛 橋北洞 삼거리에서 西北쪽 70m 지점인 峴底洞 101 일대 (600평)로 옮겨 복원됐으며 주변은 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아 公園을 조성했다.

獨立門 앞에는 迎恩門 柱礎도 복원됐으며 경내에는 獨立門 이전비를 세웠다.

建築工事單價 35.1%인상 책정

81년도 예산평성편성기준 조정—경제기획원

4월 2일 경제기획원에 마련한, 각부처에 시달한 81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건물유지비는 36%, 建築工事單價는 35.1%, 土木工事單價는 32.1%가 각각 인상 책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單價引上은 석유·전기와 각종 물가인상조치가 끝난 지난 2월말을 기준으로 實査를 통해 책정된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暖房日數를 서울·京畿·江原·忠南·忠北은 연간 110일에서 105일로 단축하고, 慶南·慶北·全南·全北은 100일, 釜山 90일, 濟州는 65일로 각각 조정했다.

南山을 그린벨트로 지정하기로

野外音樂堂철거, 잔디廣場 만들기로—서울시

4월 4일 서울시 당국에 따르면, 현재 公園으로 지정되어있는 南山을 그린벨트로 지정, 일체의 개발행위를 못하게하는 한편, 앞으로 보다 강력한 보호대책을 수립해 나간다고 한다.

또 南山 중턱에 있는 野外音樂堂은 노후가 심해, 붕괴 위험이 있고 하루 평균 6萬대의 차량이 지나고 있어 소음으로 제기능이 발휘할 수 없고, 불량청소년들이 분위기를 저해하고있어 1년내에 이를 철거 잔디廣場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의 대안으로 어린이大公園 및 서울大公園의 野外音樂堂을 활용할것을 검토하고 있다.

消防규정, 學校·아파트는 완화,

地下高街 새로 규제

살롱 간막이·카아펫은 防焰處理하도록

4월 5일 국무회의는 消防法 改正施行令을 의결하였는데, 아파트·여관의 커어튼·간막이 등 내부장식물을 모두 防焰處理토록 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반면에 지금까지 消防法의 적용을 받지않던 地下高街를 규제대상으로 추가하고 화재규모에 비해 人命被害가 컸던 살롱火災의 예방을 위해 살롱 간막이·카아펫 등은 반드시 防焰處理토록 강화했다.

개정된 消防法施行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建築許可에 있어서 消防官署의 同意期間을 원칙적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중전 3~7일)

▲ 매일 出入者가 200인(중전 50인) 이상인 건물은 防火官署 資格을 갖춘자를 두도록 완화하였다.

▲ 學校·아파트·2층 이상의 旅館의 실내장식물은 무조건 방염처리토록 된것을 ① 學校는 실험실습실·사무실만, ② 아파트는 전용면적 45평 이상, ③ 旅館은 3층 이상만 防焰處理토록 하였다.

▲ 聯立住宅은 防焰處理 대상에서 제외한다.

▲ 7층 이상의 觀光호텔 및 5층 이상의 病院으로서 수용인원 200인 이상의 건축물에는 防熱服 및 酸素呼吸器등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토록 한다.

▲ 高層建物の 10층 이하에만 설치토록 했던 出사다리 등 避難器具를 17층까지 설치토록 한다.

▲ 보일러용 油類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종래 5드럼 이내의 油類만 팔수 있도록한 危險物販賣取扱所를 1~2층으로 나누어, 2층 業所에서는 탱크롤러를 이용, 수요가에 직접 팔 수 있다.

▲ 地下高街 및 駐車場의 소방시설에 스프링쿨러 設備를 추가하고, 非常電源시설을 하도록 한다.

▲ 屋内 油類탱크 貯藏所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단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靑瓦臺향한 都心 高層建物の 검은窓 견허

3월부터 일부 호텔에선 철거,

75년부터 “안보”라는 이유로 서울시내 光化門 일대와 시청광장 주변 빌딩들은 北西쪽에 면했던 유리창이 밖을 내다볼 수 없게 가려지거나 불박이로 고정되었고 일부는 아예 무창으로 했었다.

이같은 규제는 지난 3월초 열린 청와대·건설부·서울시 등 관계자 연석회의에서 숙의한 결과 서울시장에게 필요 여부를 판단 결정하라고 서울시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지상 22층의 프라자호텔의 객실은 지난 3월초 우유빛 유리를 없애고 투명유리로 바꾸었고, 38층의 롯데호텔도 관망대 카페테리아에서 시원한 관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18층의 조선호텔은 北西쪽 視界를 막는 롯데호텔이 들어선 덕분에 다른 호텔보다 일찍 우유빛 빛살무늬의창 유리를 바꾸었다.

아직 유리에 칠한체인 서린호텔도 곧 투명유리로 바꿀 계획이라고 호텔관계는 말했다.

德壽官舘 15층 大檢察廳도 최근 6층이상 창에 끼웠던 우유빛유리를 투명유리로 바꾸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아직은 명확한 통보가 없어 靑瓦臺 주변의 玉仁洞·淸雲洞·孝子洞·安國洞 등지에 있는 10층 안팎의 건물은 중전 그대로이다.

韓·日 양국, 海外建設에 合作投資,

技術交流등 2개 결의안 채택—韓日建設協議會

韓日建設協議會 제 4차 總會(東京)는 4월 8일 양국간의 國際協力 및 技術協力を 다짐하는 2개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2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쳤다.

韓國側이 제안한 韓日合作投資指針안은 해외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규모의 大型化, 공사내용의 複雜化, 特殊技術과 裝備의 需要 증대 및 資金의 適期調達문제 등과 관련, 韓·日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해 合作投資 또는 이와 유사한 쌍방간의 協力を 추진하는것인데, 양국이 이

공동성명서에서 이를 채택함으로써, 양국은 앞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利潤과 損失에 대한 共同責任을 지고 入社에서부터 完工까지 공동으로 施工하는 協力を 하게 된다고 한국측 대표단이 발표했다.

韓·日 建設協議會는 또 이 공동성명에서 韓·日간의 海外建設協力 추진을 위해 필요한 資料를 상호간 적극 교환하고, 新開發工法 및 기타 技術情報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韓·日建設研究技術視察團을 상호교환, 기술상의 밀접한 協力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며, 금년 중에 日本建設視察團을 한국에 파견, 韓國建設技術의 開發과 發展에 협력하고, 韓國建設技術人力의 研修를 위해 日本의 關係研究機關을 개방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總地價 16兆 8 千億 원 (75년)KID조사

매년 29%올라, 서울·釜山등은 11년간 26배 뛰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월10일 펴낸 “성장과 도시화문제”라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全土地의 市場價值는 약 16兆 8 千億 원 (75년 기준)으로서 이는 그해 GNP 9兆 1 千億 원의 1.8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地價의 對GNP비율은 미국의 0.7배 (66년)보는 2배 이상 높으며, 일본의 3.3배 (73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 地價는 그동안 매년 (63~74년) 29%씩이나 상승, 같은 기간의 GNP 연평균상승율 (경상가격) 24%보다 5%나 높아, 인플레이를 주도한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서울·釜山 등을 포함한 전국 12개 主要都市의 地價는 11년동안 (63~74년) 약 26배나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의 物價上昇率보다 2배 이상 높은것이다.

또 우리나라 土地의 약 4%가 都市地域이며 부분적으로 都市化된 準都市地域이 7%, 林野가 67.2%를 차지하고 있어 耕作可能地域은 불과 22.5%라고 밝혀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都市의 平均地價는 農村 地價보다 무려 23배 (75년기준)나 되며, 이는 都市地域인 4%의 國土가 農村地域인 89%의 國土와 價値에 있어서는 같다고 분석했다.

都市 住居地域의 平均地價는 평당 45,523원 (75년)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비싼것이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都市 地價는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도 계속 높은 上昇勢를 유지할것으로 보인다.

서울都心 駐車場빌딩 건설계획 차질 “經濟性없다,” “既存建物 이전 미정”등으로

서울시가 都心駐車難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4개지역의 駐車場 造成計劃은 금년 3~9월 사이에 착공, 81~83년 사이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을 빚고 있다.

4월10일 서울시에 따르면 旧半島아케이드地區 1,625평은 지하3층 지상2층 (연면적 3,960평)을 지어 일부 (1,000평)은 아케이드로 쓰고 나머지 2,960평은 조선호텔과 아케이드용 277대 규모의 駐車場을 건설키로 했었으나, 사업을 맡은 瑞進기업과 珍德산업이 주차장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포기를 서울시에 통고했다.

또 金門島地區는 현재의 三益·韓興·뉴코리아호텔 대지 317평에, 근처에 白南·센터빌딩·뉴코리아호텔 등이 이용 하는 지상15층 지하3층 (연면적 4,140평)을 지어 345대 규모의 주차장과 사무실겸용의 빌딩으로 상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무려 56億원이나 들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産銀地區는 산은이 이전하면 주차장시설이 부족한 롯데호텔에 대해 대지 2,187평에 70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 10층 지하3층의 사무실·주차장 겸용 빌딩을 건설토록할 계획이었으나 산업은행의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주차장건설이 늦어지고 있다.

大韓商議地區도 그 이전계획이 확정되지않아 주차장건설이 늦어지고 있다.

京畿·忠南北·濟州一圓, 새 基準地價 지역 지정

9,651km².....全國土의 9.76%—건설부

4월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공고된 基準地價告示 對象地域은 首都圈 8,236km²과 濟州지역 1,414km²등 모두 9,651km²全國土의 9.76%에 해당된다.

건설부는 4월10일을 기준일로, 이들 지역에 대한 地價를 조사 中央土地收用委員會의 확인을 거쳐 基準地價를 告示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9년까지 10,409km² (전국토의 10.53%)에 대한 基準地價를 고시한 바 있는데, 이 基準地價는 基準地價告示對象地域 내에서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土地를 수용할 경우, 그 地價 또는 보상액의 기준이 되고, 土地去來規制 등이 시행되면 去來許可의 심사기준이 된다.

基準地價告示對象이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京畿道=楊州·驪州·平澤·華城·高陽·廣州·抱川·加平·楊平·利川·龍仁·金浦·安城·坡州·南楊州郡 등 15개郡.

△忠北道=鎭川·陰城郡 등 2개郡.

△忠南道=牙山 및 天原郡으로 하되 基準地價 告示된

地域 및 開發制限區域 제외.

. △濟州道=基準地價告示된 地域과 開發制限區域 및 漢拏山 國立公園地域을 제외한 1市 2郡.

單種建設免許경신, 技術·技能人力 확인강화

많은 業체가 탈락될듯—건설부

4월29일 부터 5일간 실시되는 單種工事業에 대한 일제 免許更新은, 면허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탈락업체가 많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월1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번 면허갱신에서, 건설부는 건설기술자 및 기능공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보유인원의 甲種勤勞所得稅 납세필 증명서를 제출토록 시달렸고, 서울시의 경우 실무경력 2년 이상 技能工의 근로소득세 납세필 증명서를 내도록 하고있는데, 單種工事業체들 태반이 이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建設등 제 3國에 共同進出—

韓·핀란드通商長官 회담

핀란드에 現地法人, 東歐圈進出 모색

제 1차 韓·핀란드通商長官會談은 4월12일, 建設·産業設備·貿易분야에서 양국민間商社들이 협력, 제 3국시장에 공동진출하기로 합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되었다.

J상공무부장관과 핀란드의 에스코 레콜라 對外通商省長官은 10개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에너지부문 地下貯油施設·地域暖房·銅製鍊·크레인 및 엘리베이터 부문에서 양국간 技術協力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東歐圈과 본격적인 交易增進의 길을 트기 위해 핀란드에 合作형태의 現地法人을 설립, 이를 교두보로 삼아 對東歐圈 經濟進出을 모색할것으로 알려졌다.

서울岩寺洞에 心身障礙者福祉團地 조성

서울시 長期綜合計劃마련, 85년까지 91億 투입

4월12일 서울시가 발표한 心身障礙者에 대한 長期綜合福祉對策에 따르면, 현재 23만명에 이르고있는 心身장애자를 위해 오는 85년까지 총사업비 91億원을 투입, 서울 江東區 岩寺洞에 10萬평 규모의 社會福祉團地를 조성하여, 恩平區 응암동에 있는 精神病院을 이전 확장하고 시직영의 心身障礙者綜合相談所와 精神病生活 治療所를 설치하는 한편, 정신박약자에게 원예·축산·공예·봉제·시멘트블록 등 직업훈련을 실시할 精神弱者再活 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 장애자들의 직업훈련실시와 생활보장을 위해 障礙者自活福祉工場을 건립,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케하고 맹인에 대해서도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생활 및 학습용구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道峰區 上溪洞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不具養老施設團地를 만들어 국비와 시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障礙者再活스포츠센터를 건립, 물리치료 및 재활스포츠를 겸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히기로 했다.

都市計劃區域, 面이하로 擴大 예정

人口密度 町步當 40인 넘으면 指定

정부는 금년부터 面所在地 이하의 지역이라도 필요에 따라 都市計劃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월12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都市計劃基準을 市邑 및 面所在地까지만 都市計劃區域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 下半年 中에 都市計劃基準을 고쳐面所在地 이하의 지역이라도 町步當 人口密度가 40인 이상이며 전체인구가 3,000인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도 都市計劃區域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86년 아시언게임, 서울 誘致키로 확정

총소요경비 742億원 예상—정부

4월15일, 정부는 오는 86년에 있을 제10회 아시아競技大會(아시언게임)를 당초 예정대로 서울에 유치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金玉吉 문교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年末, 油類波動 등으로 제10회 아시언게임의 유치계획을 재검토했으나, 지난 4월 정부 각부처 관계자회의에서 유치키로 최종 결정했으며,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서 오는 4월 24일까지 아시아競技聯盟(AFG)에 유치계획신청서를 제출할것”이라고 밝혔다.

86년 아시언게임의 유치경합 예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 北韓(平壤)·中共(北京)·日本(廣島)·이라크(바그다드)등이며 최종결정은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아시아競技聯盟總會에서 32會員國의 비밀투표로 확정된다.

86년 아시언게임이 서울에서 열리는 경우 所要經費는 모두 742億원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6년10월 3일부터 18일까지 4,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된다.

아파트등 登錄稅減免 1년더 延長

住宅建設을 촉진하기 위해—건설부

정부는 작년부터 실시하고있는 아파트 建設業者와 최

초분양 入住者에 대한 登錄稅 減免혜택을 앞으로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4월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아파트 등 住宅建設을 촉진하기 위한것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 오는 5월말에 끝나기로 되어있으나 장기간 계속 景氣沈滯 속에 주택건설경기가 회복되지않아 감면조치를 더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共同住宅에 대한 登錄稅 減免條例에 따라 아파트 건설업자에 대해선 保存登記 登錄稅 (과표의 0.8%)를 전액 면제해주고, 아파트 최초분양자에 대해서는 登錄稅額(과표의 3%)중 50%를 감면 1.5%만 부담시켜 왔다.

實態調査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에 아파트 거주자는 91.3%가 이사한 반면에 단독주택 거주자는 66%로 훨씬 낮으며, 평균이사 횟수도 아파트는 1.8회, 단독주택은 1.3회로서 아파트 거주자의 이동이 훨씬 잦다.

단독주택은 66.7%가 2가구가 공동거주하며, 아파트는 98%가 단일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한집에 평균 8인이 거주하고있는 반면 아파트는 4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42세로 40대인데 아파트는 38세로 4살이나 젊다.

아파트 주민은 장차 주택을 마련할 경우 52%가 단독주택을 희망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거주자는 93.6%가 계속 단독주택을 희망하고 있다.

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서도, 자기취향에 맞는 집을 직접 건축하여 입주하겠다는 가구가 74.3%에 이르고 있어, 타인이 건축한 주택을 사서 입주하겠다는 가구의 비율인 25.4% 보다 3배가량 된다.

아파트입주자 3년간 91.3%가 이사 취향대로 지어 入住희망 74.3%—住銀조사

4월16일 住宅銀行이 전국 2,000가구의 단독주택 거주자와 300가구의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住居

알 림

회원 작품 기고는 다음 요령에 의해 원고를 작성 투고 바랍니다.

- 작성요령
1. 도면작성은 트레싱 paper나, 켄트지에 inking할 것.
 2. 축척표기는 도표로하여 축소,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것.
(例 0 1 2 3)
 3. 1층 평면도와 배치도를 겸하는 것은 가급적 피할 것.

1. 도면작성 가) 평면도 ($\frac{1}{100}$, $\frac{1}{200}$)

나) 단면도 ($\frac{1}{100}$)

다) 배치도 ($\frac{1}{200}$, $\frac{1}{300}$, $\frac{1}{600}$)

라) 주요부분 상세도 ($\frac{1}{30}$, $\frac{1}{60}$) (必要時)

2. 설계개요서 : 일반적 기술보다는 계획과정과 계획개념 설명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하기 바람. 200자 원고지 × 3 ~ 5매

3. 사진 : 가) 전경사진

나) 내장사진

다) 부분사진 (Detail Design 에 주안점을 줄것.)

라) 설계자사진 (명함판 사이즈로 프로필이나 가능한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음).